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 ‘뒷걸음질’

도, 대형음식점 등 자체 감량기 설치 의무화 시기 늦춰
9월말까지 단속 유예... 330㎡ 미만은 대상 제외도 추진

제주도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면적이 330㎡ 이상인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내에 자체처리시설(감량기) 설치나 민간 위탁처리를 통해 감량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330㎡ 미만 사업장을 감량의무이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용량포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감량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제주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30㎡ 이상 식품접객업(음식점)과 관광숙박업,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장 내에 감량기 설치나 민간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등 자체처리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50%를 행정에서 보조한다.

2018년 기준 제주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하루 평균 발생량 210.3t 중 200㎡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발생량은 52.4t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1000여곳의 자체처리 의무화 사업장에서 감량기 설치 등이 더디게 진행되자 당초 7월 1일부터 수거 중단과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9월 말까지 유예한 상태다.

현재 서귀포시의 경우 현재 330㎡ 이상 감량의무화 사업장 401곳 중 349곳은 의무이행을 마쳤고, 52곳(휴업중인 10곳 포함)은 미이행 상태다. 제주시는 6월 말 기준 606곳 중 477곳에서 감량의무이행을 마쳤다.

서귀포시의 경우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위탁 처리로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이 2017년 1만 5513t에서 2018년 1만 4491t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까지 4572t이 반입됐다. 반면 감량기 설치나 위탁처리

등 자체처리는 2017년 115t에서 2018년 1357t, 올 상반기 6068t으로 크게 증가했다. 감량기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무게가 80% 정도 줄어든다.

이처럼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로 인한 감량 효과가 큰데도 제주도는 조례에 200~330㎡ 미만 음식점도 내년 1월부터 자체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고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을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도내 요식업계 등에서 식당 내 감량기 설치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설치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도는 조만간 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를 열어 다음달 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설치 의무화를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설치 업소가 너무 많아 시장혼란이 예상돼 시행을 3개월 늦췄다”며 “200~330㎡ 미만 사업장을 자체처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포럼에는 전 세계 17개국 크루즈 관계자와 제주도민 등 1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크루즈산업 순항 위한 가교될 것”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어제부터 나흘간 일정 시작
17개국 1600여명 참가 예상
전시·비즈니스 미팅 등 진행

전 세계 크루즈인의 축제,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아시아 크루즈,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에서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개회식에서 “크루즈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항로 개발, 노선 다변화, 절차 간소화,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신항 개발과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는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크루즈 산업의 순항을 위해 크루즈 산업의 가교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박홍배 사장은 “크루즈 산업을 발전시키고 아시아 관광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선 크루즈 인

프라 확충과 더불어 크루즈 산업 관계자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17개국 크루즈 관계자와 도민 등 1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69개의 전시 부스와 22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 앞서 열린 아시아크루즈관광세미나에서는 국내 각 분야별 관광학자 및 해양관광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주크루즈 아웃바운드 관광 및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과 남북교류시대의 아시아 크루즈 성장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농업 미래 이끌 전문가 키워요”

농기원, 스마트팜 활용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제주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에 나선다. 스마트팜은 온도, 상대습도, 광량, 이산화탄소, 토양 등 환경정보와 생육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단계별 정밀한 관리와 예측 등이 가능해 수확량, 품질 등을 향상시켜 수익성을 높이면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비

를 절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9월 3일부터 신규 ICT 진입농가의 기술력 향상과 스마트팜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5회 20시간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스마트팜 활용 농업인 또는 교육 희망자로 1순위 농업기술

원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2순위 스마트팜 관심 농업인이다. 모집인원은 40명 내외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제주형 스마트팜 활용사례, 농업 빅데이터 활용 지역 특화상품 개발, 스마트팜 전기설비 기초이론, 스마트팜 관수시설, 물리 어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시설환경관리 등이다.

교육신청은 9월 3일부터 모집인원 완료시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방문 또는 전화(760-7522-24)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력교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윤기자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서귀포시, 내달 2일까지

서귀포시는 '예비마을기업' 희망 기업을 9월 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의 준비단계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교육,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등에 대해 1개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며, 마을 공동체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자자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면 신청 가

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마을기업에 선정될 경우 1차년도(신규)에는 5000만원, 2차년도(재지정)에는 3000만원, 3차년도(고도화)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마을기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760-2241)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모바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도, 9월 3일까지 공모 통해
업사이클링 스마트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도내 발달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국가디지털사업 전환과 연계된 업사이클링 스마트폰 지원대상자를 공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전국 최초로 혁신 모바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다. 기존의 단순 돌봄 방식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 모바일 플랫폼,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집밖에서

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 중인 등록된 발달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중등 학령기 이상 발달장애인 가구다. 제주도는 심사를 통해 총 30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국비 3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은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서비스대상을 700여 가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 안전성 확보 제조사에서 직접 배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01 원치않는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02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03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 064)724-0991
핸드폰 : 010-3639-0050

그랜드보청기
한가위대특전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15,000원
샴송들 혼자 전화 주심서! 기다렸수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 Q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신축/증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귤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